

# 잼버리 대원들, 전국 8개 시·도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대회 참가자들이 8일 오전 9시부터 전국 8개 시·도로 이동했다. 대만 참가자를 태운 첫 버스가 출발한 이후 모두 1014개의 버스가 각 행선지로 떠났다.

참가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찰 헬기 4대와 순찰차 273대가 동원됐다. 이들은 128개 숙소에서 머물며 남은 기간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게 됐다.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가동된 것으로,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찰·소방·기상청장, 서울시장 전북도지사 등으로 구성됐다.

잼버리 비상대책반 간사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태풍이라는 큰 변수가 생겨 긴급하게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비상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을 떠나는 잼버리 대원은 156개국 3만7000여명이다.

이날 오전 9시경 대만 참가자를 태운 첫 버스가 출발한 이후 모두 1014개의 버스가 각 행선지로 출발하고 있다.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했다.

참가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찰 헬기 4대를 띄워 항공에서 에스코트를 하고 있다. 육상에서는 가동대 20개 부대와 교통경찰 500명 등 경찰관 1850명 및 순찰차 251대와 의전 담당 사이카 22대 등 273대가 투입됐다.

소방은 숙소 이동 과정에서 휴게소 혼잡 상황을 대비해 구급차량과 소방대원을 전진 배치한다.

비상 숙소는 전국 8개 시·도에 128여개소가 마련·운영된다. 시·도별로는 먼저 전북에는 10개국 5720명이 체류한다.

156개국 3만7천여명, 1014대 버스로 이동... 대만 첫 출발 경찰 헬기 4대·순찰차 273대 동원·숙소에 통역요원 배치

서울 8개국 3133명, 경기 88개국 1만 3568명, 충남 18개국 6274명, 인천 27개국 3257명, 충북 3개국 2710명, 대전 2개국 1355명, 세종 2개국 716명 등이다. 숙소는 정부와 공공기관 및 기업체·금융기관의 연수원과 종교시설의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을 확보했다. 지자체별로 배정된 국가와 인원수의 임의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국가 단위로 묶고 이슬람교도가 먹는 음식인 할랄이나 육류를 먹지 않는 비건 등 일부 조건을 고려했다.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총담합 계획이다.

숙소 도착 시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최소 1명 이상 배치돼 청결

상태와 안전을 확인한다. 원활한 의사소통 돕기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한다.

경찰은 해당 구역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관리를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에서 봉역 서비스를 활용해 의사소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소방은 숙소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숙소에 소방 순찰을 강화하고 잼버리 대원들의 식중독과 음식 알러지 등에 대비해 구급 의약품도 확보하고 병원 이송을 돕는다.

또 오는 11일 K-팝 콘서트와 폐영식에서의 인과 사고에 대비해 전국 단위 소방력 동원을 검토한다. 대원들이 한

국을 떠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혼잡 상황에 대비해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이 장관은 "지자체는 참가자가 숙소 도착할 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숙소와 화장실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숙소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식사의 질과 양, 음식의 위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서 참가자의 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남은 4박5일 동안 참가자의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잼버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가자들이 출국하는 순간까지 즐겁게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뉴스스



프랭클린 템플턴 전주사무소 개소

프랭클린 템플턴은 8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타미 아흐미드 아시아태평양 공동 대표, 마튜 해리스 아시아태평양 공동대표, 김태희 한국법인 대표이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 공무원노조 “잼버리에 공무원 강제동원 즉각 멈춰라” 반발

국공노·공노총 잇단 성명... 사전 통보·협의 없는 정부 규탄

공무원노조가 8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대회 파행 사태 수습에 공무원의 강제 동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대한민국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사전 통보 및 협의 없이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일제히 내놨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오후 3시에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각 부처

에 영어회화 능통자를 10명씩 잼버리 행사에 동원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오후 5시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처별로 차출된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정부대중청사 제3주차장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일부는 전날 저녁 세종으로 미리 이동해 머물렀다.

그러나 집결 직전 행안부로부터 각국의 요청사항이 서로 달라 조율하는데

시간이 지체됐다며 문자 수신자는 출장 대상에서 제외돼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국공노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면서도 "대통령과 총리 말 한마디에 어떠한 협의도 없고 어디로 갈지 알거나 결집지도 모른 채 동원돼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 당해야 하는 집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일단 인원 동원만 해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반박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공노총도 "특별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정부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일방적인 계획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공무원은 잼버리 현장에 미구급식으로 동원해도 되는 뒤처리 전담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공무원의 노동 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멋대로 결정하지 말라"며 "지금 당장 공무원에게 사퇴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공무원들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뉴스스



전북도는 광복절 제78주년을 맞아 8일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석규 독립애국지사를 위문 방문했다.

## 광복절 맞아 생존 독립애국지사 위문

전북도, 이석규 지사 찾아 존경·감사의 마음 전해

전북도는 광복절 제78주년을 맞아 8일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석규 독립애국지사를 위문 방문했다.

이날 위문은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석규 애국지사님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현재 도내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중 학우들과 독서회를 조직해, 독립선언문과 태극기 제작 등 독립

활동을 하시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0년 대통령표창 서훈을 받았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석규 애국지사님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 도, 농생명산업대상 후보 접수

지속가능 농업·미래먹거리 농생명 분야 등... 내달 15일까지

전북도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세운 농업인·단체 등 숨은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기 위해 '제1회 전북도 농생명산업대상' 후보자를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법인·단체 사무소 관할 시군 농업부서에 접수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차 예비심사, 현지확인을 거친 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생명산업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전북도 농생명산업대상은 농업·농어촌의 가치 제고와 농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해, 수상자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으로, 작년까지 삼각농경 대상으로 시상하다 올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전북도지사 명의의 메달과 상패를 수여하고 농식품인력개발원 영농·영양교육 강사 우선 위촉 및 전북119안전체험관 등 일부 시설의 사용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시상분야는 지속가능 농업, 활력있는 농어촌, 미래먹거리 농생명 3개 분야로, 지속가능 농업 분야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공헌한 자, 활력있는 농어촌 분야는 농어업인 삶의 질과 농어업·농어촌 가치제고를 위해 공헌한 자, 미래 먹거리 농생명 분야는 식품 소재 등을 기반으로 기술·산업 간 융합을 통해 농생명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법인·단체 사무소 관할 시군 농업부서에 접수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차 예비심사, 현지확인을 거친 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생명산업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2023년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군산대 2학기 원광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표현력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원에서 최초로 개편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인기과목에 맞설이 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목과 민생(노량리)학원 교수 역임
  - 한국수재지·승변(외)전국회장
  - 전주세인트앤지스 사무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스피치' 인기 강사
  - KBS TV 아슬아슬, MBC TV, JTBC, EBS 출연 및 MC 역임
  - 스피치 일일리포트 · 워킹코치 · 심리상담사
  - 심리상담사 · 스피치 · 시 낭송 지도자
  - 저서 "365 스피치클리닉",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김제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웃음코칭(주)	익산, 논산, 김제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화), 스피치지도사(수)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상담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